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계 열	인문계열(B형)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 명	

※ 문제지 확인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흑색) 볼펜**으로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2.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을 숫자로 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며, 인적사항이나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을 유의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B형)

(가) 패러다임은 미국의 과학 사학자 겸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 그의 명저 『과학 혁명의 구조』(1962)에서 제창한 개념으로,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입니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패러다임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전근대인에게는 우주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유기체지만, 근대인에게 우주는 복잡한 기계에 가깝습니다. ……

일단 과학자 사회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그 패러다임은 어떤 문제가 의미 있는 과학적 문제인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여러 답안 가운데 어떤 답이 더 훌륭한 답인지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쿤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학을 ‘정상 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 그렇지만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적인 문제들이 연이어 등장하면 정상 과학은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과학 혁명’이 뒤따릅니다. ……

쿤은 정상 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러다임의 공존이나 경쟁은 과학 혁명기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과학은 이렇게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면서 발전합니다.** ……

쿤에 의하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성공을 맛봤던 과학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때에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합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의 패러다임보다 단순하고 조야하기까지 합니다. ……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영역에서도 과거의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 계속해서 대체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술에 집착하던 기업들은 신기술로 부상하는 신생 기업으로 대체됩니다. 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과학의 발전을 낳듯이, 기술 혁신에서의 이런 변화 역시 거스르기 힘든 역사의 발전 과정입니다.

(나) 사람들은 다양한 경제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욕망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여 충족할 수 있으며, 욕망이 충족될 때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다.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에는 휴대 전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 …… 사람들은 육체의 생존과 생활의 편리함, 나아가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소비라고 하는데, 소비를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누군가에 의해 생산되고 교환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경제생활을 한다. 경제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에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교환도 결국은 소비를 위한 과정이다. ……

경제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득을 얻고, 소비하는 경제생활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도 없고, 생활의 만족과 삶의 행복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생활은 인간의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원만한 경제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문화생활이나 여가 생활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11세기경부터 서유럽 각지에 시장이 열렸다. 시장을 중심으로 교역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로마 시대의 도시나 교회의 주변, 그리고 교통의 요지에 상인과 수공업자가 모이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

지고 상업 거래가 확대되면서 도시는 한층 성장하였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은 지중해 무역의 거점 도시로서 동방 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렸고, 밀라노와 토리노 등에서는 직물업이 발달하였다. 북부 독일의 함부르크와 뤼베크 등은 한자 동맹을 결성하여 발트해와 북해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

중세 도시는 처음에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으나, 점차 영주와 타협하여 도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았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특허장을 얻거나 혹은 무력으로 자치권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신분상 자유를 누렸고,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고 도시 행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다.

(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무릇 상인은 사농공상(士農工商) 네 부류 백성의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열에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 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 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 ……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 리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物産)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道)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 그러고서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 버린다.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 탓에 쇠퇴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럴겠는가?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 낼 방법을 모르고, 재물을 만들어 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 간다.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 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베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에는 공장(工匠)과 도공, 풀무장이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

지금 종각(鐘閣)이 있는 종로 네거리의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리가 채 안 된다.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 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대개 몇 리에 걸쳐 있었다.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온 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1. 제시문 (가)의 밑줄 친 “과학은 이렇게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면서 발전합니다.”에 대해 설명하시오.(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 주장을 제시문 (나)와 (다)를 모두 활용하여 옹호하시오.(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Tel 02-3408-3114 [www.sejong.ac.kr](http://www.sejong.ac.kr)

입학안내 Tel 02-3408-3456, 4455 Fax 02-3408-3556 [ipsi.sejong.ac.kr](mailto:ipsi.sejong.ac.kr)